

남구 미디어월 농아인·다문화 가정의 영상편지



매주 20여명 공개... 촬영팀 운영
구청 N스튜디오·야의 촬영 지원

광주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통해 가족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첫 영상 편지로 청각·언어 장애를 지닌 농아인과 태평양을 건넌 뒤 남구에 터를 잡은 다문화가정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이들이 띄운 영상 편지는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광주시민들에게 전파된다.

영상 편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12명이다. 월산동 소재 농아인 쉼터를 이용 중인 청각·언어 장애인 7명과 베트남 등지에서 삶을 접고 남구에 동지들 틈 5명의 다문화가정 이웃이다. 영상 편지의 분량은 5분가량이다.

농아인들은 수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이웃들은 각국의 언어를 통해 가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지고지

순한 마음을 전한다. 수어 및 각국의 언어로 표현한 편지 내용은 영상 화면 및 번역본 자막으로 동시에 제공된다.

가족에게 영상 편지를 쓴 이들은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미디어월을 통해 여러 가족의 사연이 빛과 열에 전파돼 가족에 확산의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사랑 영상 편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애뜻한 가족애를 시작으로 1주일에 20명가량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을 다룰 예정이다.

남구는 가족사랑 편지를 통한 관내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동영상에 담기 위해 전담 PD 및 카메라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촬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들이 희망할 경우 구청 내 N스튜디오 및 야의 촬영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400명가량의 가족 이야기를 각각 15초에서 1분 분량의 영상으로 촬영 및 제작을 끝마친 상태다.

관내 주민들은 가족사랑 편지로 건강을 기원하거나 소원 성취,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남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다”며 “핵가족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데, 가족사랑 편지가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북구, 더불어나눔행복공동체센터 착공

복지·문화·체육 복합생활공간

광주 북구는 오지 생활권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오지주공 1단지 내에서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지난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

정된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생활SOC 복합화 시설로 추진됐다.

북구는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오지주공 1단지 내에 연면적 274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설 내에는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이 들어설 예정으로 복지과 문화, 체육이 어우러진 복합생활공간이 조성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향후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생활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누리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광산구,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일반가정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

광주 광산구는 13일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으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는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 난방비 절약에 효과적인 친환경보일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소유주 또는 세입자다. 보급 규모는

6110대로 총 6억6600만원이다. 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의 보조금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다. 광산구 기후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는 대기환경 개선 뿐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며 “교체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동구 ‘사랑의 헌혈버스’ 운영

16일 동구청 앞 주차장서 진행 혈액·빈혈검사·혈압 체크 실시

광주 동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사랑의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랑의 헌혈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 안정화

와 생명나눔 실천 운동에 공직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추진됐다.

운영 시간은 오는 16일 동구청 앞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인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헌혈 참여자를 대상으로 헌혈증을 비롯

해 혈액·빈혈검사, 혈압 체크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기념품도 증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 참여가 줄어들어 생명이 위태로운 수술 환자조차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가치 있는 봉사로서, 공직자·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서구, 맨발걷기 동호회 회원 모집... 24일까지 신청

광주 서구가 서구민의 일상 속 맨발 걷기 실천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 동호회 회원을 모집한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맨발걷기는 어싱(Earthing)이라고 하며 맨발로 황토흙을 밟으며 땅과 사람의 몸을 접촉해 제2의 심장인 발바닥의 지압과 접지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이다.

맨발걷기 동호회는 풍암호수공원, 상무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회원 모집

은 13일부터 24일까지 각 공원별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이후 3월부터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맨발걷기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까지 해당 공원에서 주 3회 맨발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맨발걷기 동호회 회원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관리팀(062-350-47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혜인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